

INTENSIVE

현대운문

전현근 | 김명수



iBex Study

페이지 이동 안내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문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제의 해설로 이동합니다.

3. ⑤

정답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그 화안한 골길’을 지나오던 시간이다. 그때 화자는 그 길을 ‘아득히’,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하였으므로,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아직 살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좋아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도 날이 살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다. 글쓴이는 이 시간을 ‘내 시골 유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도 되는지 ‘당신’에게

← 문제 해설의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제로 이동합니다.

*굿노트 및 노타빌리티 등의 어플에서도 작동합니다.

*윈도우 및 안드로이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대운문을 잘 하려면

수능 국어에서 현대운문은 문학에서 가장 쉽게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운문을 ‘잘 한다’라 하는 것은 모든 문항을 다 맞으면서 ‘얼마나 빨리 풀어’ 독서 영역에 시간을 넘겨 줄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학생들이 현대운문을 시험 당일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스스로 해석을 시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 또한 낮아질 위험이 큼니다. 결국 현대운문에서도 해야하는 생각과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학적 표현법

현대운문은 첫 문제는 거의 대부분 ‘문학적 표현법’이 출제됩니다. 반복, 감각적 표현, 시간, 계절 등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표현법들은 작품을 읽어내려가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고 시도하다 보면 점점 다양한 표현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은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학생 수준에서 스스로 해석한다면 잘못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대운문에서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해당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작품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보기>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은 해당 문항 뿐만 아니라 전체 문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기> 분석하기

독서 문제에서 <보기>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작한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문학 문제에서 <보기>는 작품의 주제 및 핵심 요소들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학 문제에서 <보기>가 주어지는 이유를 ‘지문을 읽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 문제는 결국 난도 조정을 위한 킬러 문제의 역할을 합니다. 즉, 학생들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가 주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하나로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작품을 읽는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는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만들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학 문제에서는 <보기>를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판단 기준과 관점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보기> 문제 질문을 받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학생들이 <보기> 문제의 선택지를 판단할 때 <보기>를 참고하지 않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지문과 선택지를 번갈아가면서 보며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정답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기>에 근거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흔히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며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란 결국 <보기>의 관점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보기> 분석하기

그렇다면 다음 <보기>를 예시로 <보기>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5번 -

[공통점]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된다. (그리움의 정서)

[차이점]

이용악의 시(가)에서는

①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궁벽한 산촌)이다.

②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이다.

→ 존재하는 공간이며, 돌아가야 한다.

이시영은 시(나)에서는

① 고향은 이웃들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다.

② 지금은 없지만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다.

→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며, 돌아가는 것이 아닌 기억한다.

따라서 해당 <보기>에서 선택지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면 정답(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가)와 (나)의 고향에 대한 <보기>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기술되거나 각각을 부정한다.

② 선택지에서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제3의 근거를 든다.

③ 각 작품의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잘못되었다.

④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선택지에서 특정된 각 작품의 구절이 맞지 않는다.

<보기>의 해석과 분석은 각 지문의 <보기> 문항 해설에 나와있는 [생각의 흐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어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지는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식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당이처럼 느껴질 때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 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 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테 얼리어 Ning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찡찡 올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 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 -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뒀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뺨들뺨 들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 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 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 을 쓰고 눈을 찢찢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 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지손: 만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엮드리게 했다지만

[A]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A]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B]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 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2.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쨍쨍 올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22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A]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 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B]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C]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땃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D]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늑이 북극을 꿈꾸는데
늑은이는 늑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E]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 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려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 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혜를 입는구나. 이에 파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한 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프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뻣뻣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육,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 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4.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줄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5.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 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떴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양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충충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작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흐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슬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금강산시 3」 -

(나)

-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A]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C]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D]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E]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들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F]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니다 —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운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충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껴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껴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썰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옷간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깨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낀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웅패기에 찰락 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랭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뺏겨 오고** 부엌의 솥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3.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쉼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연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작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짜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5.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 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깅자깅’, ‘끼득끼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23학년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올타리엔** 텃밭을 이룬 **넉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
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
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쉽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
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
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
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
의 유연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뎡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벌이 다
시 나고.....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
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菜田)」 -

(나)

┌ 우리는 씹어 가는 참나무 떼,
[A] └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 함께 씹어 갈수록
[B] └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C] └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 우리는 서서히 씹어 가지만
[D] └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E] └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F] └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2.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연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별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 되어 있군.
- ③ (가)의 '넉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빠른 정답

1	④	2	⑤	3	②
---	---	---	---	---	---

문항별 정답률

1.	①	3	②	5	③	8	④	82	⑤	2
2.	①	1	②	4	③	2	④	7	⑤	86
3.	①	10	②	38	③	7	④	11	⑤	34

1. ④

정답 (가)에서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과 같은 표현을 통해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나)에서는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과정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낸 것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열하고 있기는 하나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② (가)에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에서 자연물에 빗댄 화자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반면 (나)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③ (가)에서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와 같은 표현에서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가 감각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시퍼런 무쇠’를 통해 색채는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간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야’에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의사항

- ① ④번이 정답인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본다면, 3번 문제의 <보기>에서 (가)와 (나)의 화자가 ‘결핍’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핍은 각각의 작품에서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이루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와 (나)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수능과 평가원 문제에서 표현법을 묻는 문제는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⑤

정답 내용(가)에서 화자는 자신 ‘또한’ ‘불꽃’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존재인 ‘불꽃’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마구’ 쓰다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자신과 ‘플라스틱 물건’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앞으로 ‘열렬히’ 살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② (나)의 화자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물건’과 달리 ‘하나씩’ 만들어지는 ‘호미와 낫’이 되고 싶다고 하므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화자의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고유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삶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온통’은 그러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④ (가)에서 화자는 ‘구름같이 피러던 뜻’이 ‘날로(날마다)’ 굳는다고 한 것은 자신의 부정적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에서 화자가 버스에서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은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표현이다.

3. ②

정답 ‘불꽃’이 부정적인 속성이라면 화자에게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채워줘야 하는데, 오히려 ‘끓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불꽃’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어버리게 된다면 화자의 결핍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① (가)의 ‘서른 나문 해’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의미하며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날을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를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③ (나)에서 ‘틸보네 대장간’은 ‘플라스틱 물건’과 달리 하나 하나 달고 두들겨 정성스럽게 물건을 만드는 곳이다. 이는 화자가 현재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결핍’을 찾고자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에서 화자는 도시 문명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추구하는 참된 가치를 ‘틸보네 대장간’에서 찾고자 하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는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걸려 있고 싶다’는 ‘틸보네 대장간’의 ‘호미와 낫’이 되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섬’으로 가려는 화자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는다고 하였으므로, ‘육지’는 초라한 경력(지나간 시간)을 보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과 같다고 여겨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버스’는 화자가 결핍을 느껴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주의사항

- ① 이 문제는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한 현대운문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특히 ②번 선택지는 자칫 잘못하면 의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연륜」 또한 해석 자체가 어려운 작품이었다.
- ② ②번에서 (가)의 ‘육지’에서 화자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었다. 현재 화자는 육지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지’는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 맞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시인은 결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성찰함과 동시에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가)에서 화자는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느낀다.

(나)의 화자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낀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가)와 (나)의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나 부정하는 것을 찾는다.

① (가)에서 화자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끼거나 (나)에서 화자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느낀다면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①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상황과 이유를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근거를 드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에서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① (가)와 (나)의 화자가 <보기>의 근거에 따라 ‘결핍’을 느끼거나 선택지에서 특정된 지문의 구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②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불꽃’이 긍정적인 존재이고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있는 것도 맞으나 ‘불꽃’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어서는 않된다. ‘불꽃’의 긍정적인 존재라면 화자에게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빠른 정답

1	②	2	④	3	⑤	4	③
---	---	---	---	---	---	---	---

문항별 정답률

1.	①	3	②	87	③	6	④	2	⑤	2
2.	①	9	②	5	③	17	④	62	⑤	7
3.	①	3	②	2	③	10	④	8	⑤	77
4.	①	4	②	5	③	76	④	8	⑤	7

1. ②

정답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은 평소에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지는 않아도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것에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①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에서 화자는 종가에 대한 자부심이 아닌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 - 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종가가 동네 백성들을 부당하게 대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종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 - 무런 제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는 무능력한 종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⑤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가 탐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종가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2. ④

정답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엮드리게 했다지만’에서 ‘노래’는 ‘귀신을 쫓아 엮드리게’ 할 만큼 상대를 감복시킬 힘을 지니고 있다.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에서 시집(말)에 악보(노래)를 그리지 않는 것에서 ‘말’에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A]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융합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야기’만을 뜻한다. ‘단점’ 또한 찾아볼 수 없다.
- ③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에서 시인의 ‘말’과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A]는 ‘귀신을 쫓아 엮드리게’ 하는 힘을 보여 준 ‘노래’와 대비되는 ‘가사’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므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와는 관련이 없다.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를 제시한 것이다.

주의사항

- 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4번 문제의 <보기>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 또한 필요하다고 한다. 즉 시에는 ‘노래’와 ‘이야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그렇기에 ④번 선택지처럼 ‘노래’와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답으로서 적절하다. ③번 또한 ‘말’과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노래’이다. 즉 ‘심장의 박동’은 ‘노래’를 뜻하며,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말’은 ‘노래’를 되찾아야 하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보기>에서 (가)와 (나)는 ‘산문’과 ‘운문’의 측면에서도 대비되는데, (나)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가)와 같은 ‘산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같은 산문인 ‘말’과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 ‘말’과 ‘노래’, 혹은 ‘이야기’와 ‘노래’가 연결되어야 한다.

3. ⑤

정답 (가)에서 종가에 ‘지금도’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것은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뜻한다. (나)에서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는 과거와 달리 시집에 악보가 없다는 뜻이므로, ‘영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가)는 종가의 위세가 ‘쨍쨍 울리던 옛날’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동네 백성들을 착취하는 종가에 대한 인상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의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이라는 것에서 종가의 폐쇄적인 모습을 알 수 있고, ‘검은 기와집’이라는 것에서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사용하여 ‘노래’가 ‘상처’를 ‘쉬이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를 쓸 수가 없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처용’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쫓아 엮드리게’ 할 만큼 강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에서 후세에 전해짐을 알 수

4. ③

정답 내용(나)에서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한 것은 <보기>에 따르면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말한 것이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것은 아니다.

- ①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어수선했던 행동을 ‘닝닝거린다’로 표현하고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종갓집 영감님의 행동을 ‘살아 나간다’와 같이 현재 시제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현재 시제의 사용은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한다.
- ② <보기>에 따르면 화자가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나)에서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가 드러나는 데, 종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말굴림’과 ‘주릿대’를 앵기게 하는 것에서 이러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시’에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필요한데, (나)에서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에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뇌수’는 ‘이야기’를, ‘심장’은 ‘노래’를 뜻한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가)는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보여주고 (나)는 ‘시’에 ‘이야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의사항

- ① 선택지들이 다소 무난하여 정답을 고르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이나 (가)와 (나)의 해석을 고려했을 때, 출제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었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가)는

- ①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낸다.
- ② 현재 시제를 통해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 ③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산문시이다.

(나)는

- ① 노래는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
- ② 과거 이야기(처용)가 나타난다.
- ③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을 지닌 시이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보기>에 나타난 (가)와 (나)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나타거나 부정하는 것을 찾는다.

- ①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가 깊어진다.
- ② 노래는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드러난다.
- ③ (가)가 시론, (나)가 산문시이다.
- ④ (가)에서 과거 이야기를 제시하거나, (나)에서 현재 시제를 통해 생동감있게 표현한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에서 상처에 대한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근거를 드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③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보기>에 따르면 ‘시’에는 ‘노래’가 필요하고,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되는데, 선택지에서 ‘시’에서 ‘노래’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관점과 완벽하게 반대된다.
- ② (가)와 (나)에서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의 화자가 <보기>의 근거에 따라 ‘상처’가 나타나나 선택지에서 특정된 지문의 구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빠른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④	5	①
6	④								

문항별 정답률

1.	①	1	②	1	③	95	④	2	⑤	1
2.	①	1	②	2	③	90	④	6	⑤	1
3.	①	2	②	92	③	3	④	2	⑤	1
4.	①	1	②	2	③	15	④	91	⑤	1
5.	①	61	②	2	③	15	④	21	⑤	1
6.	①	1	②	4	③	8	④	47	⑤	40

1. ③

정답 글쓴이는 ‘날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또한 ‘하늘은 사사사로움’이 없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에서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에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공동체의 모습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나)에서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에서 부정적 인식은 확인할 수 있지만 앞날에 대한 회의는 찾을 수 없다.
- ④ (가)와 (다)에서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과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찾을 수 없다.
- ⑤ (나)에 화자가 자연과의 교감을 지향하나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다. (가)와 (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해 장소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2. ③

정답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으나, ‘앞내강에 씨레나무(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밀려 나리’에서 마을에 홍수가 나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 ① 화자는 현재 돌담의 울타리가 오래된 성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산기슭에서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답답하고 막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에서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④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여도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결핍된 상황에서 어린 아이는 ‘북극’, 즉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꾼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한겨울 밤’은 일제 강점기의 고난과 시련을 뜻하며, ‘강물조차 얼어붙는다’는 것은 비극적인 현실을 뜻한다.

주의사항

- ① <보기>에 따르면 「초가」에서 이육사는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장을 전개하며 악화되어 가는 현실을 묘사했다. 그렇기에 정답인 ③번 선택지에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은 <보기>와 반대된다.
- ② ④번 선택지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는 ‘북극’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가 마치 ‘이상세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보기>에 따르면 현재 화자는 비극적 현실인 ‘겨울’에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다른 공간인 ‘북극’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이상세계’가 아닌 그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른 ‘공간’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3. ②

정답 화자는 산을 불편하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한 덕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다. 하지만 산 자체가 의지를 가졌다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산은 부족한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지, ‘인간의 덕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다.

- ①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에서 ‘산’은 ‘인간’과 달리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에서 화자는 산이 삶과 죽음을 이어 주는 존재로 여기며 죽음 이후에도 산에 묻혀 동화되고자 한다.
- ④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에서 화자는 산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에서 화자가 현재 산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향함을 알 수 있다.

4. ④

정답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① ‘나’는 꽃의 공교함과 줄렬함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 ② ‘나’는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기준이므로,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 ③ ‘놓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에서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 ⑤ ‘나’는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본다.

5. ①

정답 (가)에서 먹으로 그린 ‘묵화’는 종이 쳐 있어 어둡고 낡은 이미지를 드러낸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 가는 모습 또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고 산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의 ‘품’은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묵화’는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황혼’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고향의 현실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산을 바라보며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라며 삶과 죽음을 연결짓고 있다. 이는 산과 화자를 연결시켜주는 ‘북창’이 절망적 상황에 대응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③ (가)에서 ‘묵화’에 ‘종이 쳐’있는 것은 그만큼 오래됐음을 보여주며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나)에서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제시한 것으로 고향의 이미지를 분절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북창’은 선망하는 세계인 산과 분리된 것이 아닌 이어진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 술래잡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에서 ‘모매꽃’은 화자가 부끄워서 얼굴이 붉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나)에서 산은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덕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는 찾아볼 수 없다.

주의사항

- ① ④번 선택지는 <보기>들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번의 <보기>에서 화자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번의 <보기>에 따르면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낸다. 이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면 ‘묵화’는 화자가 오래전 떠난 고향을 추억하는 것(표현 대상)을 그림으로 대신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묵화가 오래되어 종이 쳐있고 띄엄 띄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기억이 분절되어 파편적으로 기억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④

정답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뜻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①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대신하여 나타내어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②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청년들의 상황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당시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세속적인 삶의 공간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속성을 지닌 ‘장거리’로 대신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의사항

- ① ⑤번 선택지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아마 (다)에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연인 ‘소’나 ‘나비’의 행위에 따라 귀하게 여겨지는 풀과 하찮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의 주장은 ‘우열’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끼리도 ‘우열’을 나누면 안된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문학적 표현에서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낸다.

- ①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한다.
- ②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보기>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 방법이 서로 섞여서 나타난 것을 찾는다.

- ① 사물의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 ② 대상의 한 부분으로 실체를 대신한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① 문학적 표현에 대해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② 작품에 대한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④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다)에서 적막한 분위기는 확인할 수 없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 ① 선택지에서 사물의 속성이 실체를 대신하고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고 있지만 선택지에서 특정된 지문의 구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선택지 이해]

본 문제는 <보기>와 선택지를 연결짓기 어려워 보충합니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사물의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대상의 한 부분으로 실체를 대신한다.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사물의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사물의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대상의 한 부분으로 실체를 대신한다.

빠른 정답

1	②	2	④	3	①
---	---	---	---	---	---

문항별 정답률

1.	①	17	②	67	③	4	④	9	⑤	3
2.	①	2	②	3	③	10	④	70	⑤	15
3.	①	49	②	9	③	20	④	17	⑤	5

1. ②

정답 (나)에서 ‘그’가 이사 온 후 ‘유리 담장’을 이용해 ‘아이들’을 부하로 만든 사건을 그리고 있다. ‘그’가 집에 유리로 된 담장을 세우자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것을 부수게 되는데, ‘그’는 아이들에게 상관없으니 마음껏 놀라고 한다. ‘아이들’은 계속 유리 담장을 깨버리고 결국 동네의 모든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권력자(그)가 군중(아이들)을 기만적인 통치전략을 통해 지배하게 되고, 군중(아이들)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길들여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비판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를 통해 화자가 옛날의 소박한 삶의 풍경을 묘사하며 과거를 회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실을 관망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가)에서 ‘수수력’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난다. 하지만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끼는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세계이다.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찾을 수 없고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와 ‘~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가자’가 ‘돌아가자’로 변주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찾을 수 없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옛날로 가자’라며 청유형 어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충고하는 어조는 확인할 수 없다.

주의사항

- ① ①번 선택지에서 ‘관망하는 태도’란 화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뛰어든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한다.
- ② 현대시에서 첫 문제는 대부분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실 ‘주제’(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를 묻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보기>의 관점을 통해 표현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④

정답 ①은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넋 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는 등 평화로운 농촌 공동체의 분위기가 드러난다. 또한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에서 공동체의 노동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②은 ‘그’가 ‘아이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어 묵묵히 벽돌을 나르게 하는 공간인데, 따라서 ②은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①은 화자가 ‘향’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공간으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은 아니다. 반면 ②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일렬로’ 서서 일하는 공간이므로, 자유로운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②은 화자가 ‘향’에게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돌아가자고 하는 공간일 뿐,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③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이 아닌 명령에 따라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 ③ ③은 돌아가야 하는 공간이기에 낯선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아이(견고한 송판)가 추방당하는 공간이므로,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⑤은 ‘향’이 화자와 함께 돌아가야 하는 공간이기에 우호적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②에서 ‘아이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주의사항

- ① ‘①과 ②을 왜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는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주제 의식이 집약된 공간이 과거의 ‘정자나무 마을’이다. (나)에서는 대중이 권력에 길들여지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러한 공간이 ‘그 골목’이다. 즉 ①과 ②은 각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③은 공동체의 생명력과 순수성이 있었던 과거의 공간이고, ④은 대중이 권력에 의해 착취당하는 현재의 ‘노동만 남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3. ①

정답 (가)에서 ‘그 미개지’는 ‘소박한 목숨’을 꾸려 나가기 위해 노동을 하던 과거의 공간이다. <보기>에 따르면 현재 그 공간은 건강한 생명력을 잃고 물질문명의 허위와 가식으로 물들었다. 화자가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고 한 것은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도, 작품에서도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나)에서 그동안 ‘푹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유리 담장을 떼어내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 판명되었다’라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유리 담장’이 바로 권력자가 대중을 길들이는 기만적 통치술임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즉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이는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과 의미상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기생충의 생리’는 농경 문화의 전통과 반대되는 문명의 병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놀아도 된다는 것에 즐거워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라고 주장했다가 골목에서 추방되었다. 따라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집단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획일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서 화자는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넉랑 그만’ 두라고 말 하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 ‘발돋움의 흥내’는 물질문명의 허위에 물들어 가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아이들이’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가 유리를 깨도 괜찮다고 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대중이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넘어가 길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보기>에 따르면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낸 후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보기>에 따르면 권력의 통치술에 넘어가 자유를 상실하고 권력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주의사항

- ① 이 문제의 정답인 ①번 선택지의 정답률 49%로 문항 자체치고는 상당히 낮다. 게다가 ③번과 ④번 선택지의 오답률 또한 상당히 높은걸로 보아, (나)와 <보기>가 잘 연결된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기>에서 (나)가 현실에 비판적이며 권력자가 대중을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그’를 권력자로, ‘아이들’을 대중으로 연결짓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특히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시

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보기> 문제는 <보기>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의 관점과 다른 것은 모두 ‘주관적인 판단’이다.

- ② ①번 선택지에서 화자가 ‘미개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살던 ‘장자나무 마을’은 과거이고, ‘미개지’는 새로 개척하려는 곳이므로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한다고 볼 수 없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공통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다.

(가)에서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나)에서는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을 비판한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보기>에 나타난 (가)와 (나)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나 부정하는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의 각각의 내용이 반대로 서술된다.
 ② (가)와 (나)의 내용을 부정한다.
 ③ (가)와 (나)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지 않는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에서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근거를 드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①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가)와 (나)에서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의 화자가 <보기>의 근거에 따라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만 선택지에서 특정된 지문의 구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빠른 정답

1	①	2	④	3	⑤	4	⑤	5	④
6	③								

문항별 정답률

1.	①	83	②	6	③	3	④	5	⑤	3
2.	①	2	②	9	③	10	④	73	⑤	6
3.	①	2	②	5	③	6	④	5	⑤	82
4.	①	3	②	4	③	6	④	3	⑤	84
5.	①	7	②	8	③	10	④	72	⑤	3
6.	①	4	②	9	③	76	④	7	⑤	4

주의사항

- ① ⑤번 선택지에서 (나)의 ‘꽃’의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착각할 수 있다. 운문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려면 계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어가 등장하거나(봄, 여름, 눈 등) 계절의 변화 혹은 특정 계절의 상황을 묘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율리유곡(栗里遺曲)」(22학년도 6월 평가원 고전 운문)에는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살구꽃’이 ‘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한 계절이 지나감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판단할 때는 고정관념에 따라 시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①

정답 (가)에서는 ‘낙엽’을 푸른 담 위에 지던 ‘낙화’에 빗대어 ‘낙엽’의 하강하는 속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전체적으로 ‘길’을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에 빗대고 있다. (다)에서는 ‘새악시 처녀들’을 날쌔 ‘살렝이’, ‘여우’와산에서 내린 ‘암짐승’ 등에 빗대어, ‘새악시 처녀들’의 날쌔고 생명력이 넘치는 특성을 보여준다.

- ② (가)에서는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의 별이 뜬 밤바다의 모습을 회상한다. (다)에서는 과거에 글쓰기가 좋아했던 ‘처녀’와 글쓰이의 고향에서 ‘육보름 밤’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산길’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나)와 (다)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회상하여 일러 주는 뜻을 나타내고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종결어미 ‘-더니라’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반면 (나)와 (다)에서 예스러운 종결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가)에서는 ‘풍설’, ‘구월’, ‘낙엽’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다)에서는 ‘육보름’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더불어 (가), (나), (다)에서 모두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④

정답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들이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세상 사는 이치’란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뜻한다. <보기>에 따르면 ‘길’은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데, ‘세상 사는 이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이 ‘내적 성찰’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에서 화자는 ‘화안한 골 길’을 거쳐 ‘백화 양상한 사이’를 지나왔다고 하며 자신이 금강산에 온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자기 내면에 투영된 자연의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하여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길은 그런 사람들에게 좌절과 시련을 겪게 하여 일깨우려고 한다.
- ⑤ (가)의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는 화자가 오늘밤 산장에서 바라본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는 길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길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난다.

주의사항

- ① ④번 선택지는 잘 나오지 않는 정답 유형이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내적 성찰을 한다고 명시되며, ‘사람들’이 지문에 여러 번 언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자칫 잘못하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확하게 ‘세상 사는 이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가)에서는

- ①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한다.
- ② 자연을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나)에서는

- ①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다.
- ② 길에서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보기>에 나타난 (가)와 (나)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나 부정하는 것을 찾는다.

- ① (가)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부정하거나 (나)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긍정하면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에서 화자가 자연과 정서적 교감을 하지 않거나 (나)에서 화자가 길에서 내적 성찰을 하지 못하면 적절하지 않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에서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근거를 드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와 (나)에서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의 화자가 <보기>의 근거에 따라 정서적 교감과 내적 성찰을 하지만 선택지에서 특정된 지문의 구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④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내적 성찰’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치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내지 않는다. (나)에서 ‘내적 성찰’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난 ‘사람들’이다.

3. ⑤

정답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그 화안한 골길’을 지나오던 시간이다. 그때 화자는 그 길을 ‘아득히’,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다고 하였으므로,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아직 살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좋아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도 날이 살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다. 글쓴이는 이 시간을 ‘내 시골 유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도 되는지 ‘당신’에게 묻고 있으므로, ‘아직 쉼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의 ‘구월’은 ‘고운 낙엽’이 ‘푸른 담 위’에 ‘낙화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는 화자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일 뿐, 고뇌가 심화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다)에서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화자는 자연과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기에 고독감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고향 마을 사람들이 복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시간이다.
- ④ (가)에서 화자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지 않다.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과거에 좋아했던 여인을 처음 알게 된 날로, 지난날을 후회하는 내용은 아니다.

4. ⑤

정답 화자는 ‘동해안’에서 밤하늘에 허다하게 뜬 바다의 별들을 보며 장엄함을, ‘산장’에서 하늘에 뜬 별들이 꽃과 같이 난만하다고 느꼈다. 이처럼 ‘동해안’과 ‘산장’은 화자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고 자신이 받은 인상을 표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인 속성의 공간이 아니라 유사한 속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해안’에서 ‘산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① (가)에서 ‘아득히’와 ‘왔더니라’를 반복하는 것은 화자가 ‘첩첩한 산길’ 통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머언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흰 돌’은 화자를 나타낸다. 즉 ‘흰 돌’이 ‘물소리’에 씻긴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③ ‘오래여 작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는 모두 오랜 세월을 견뎌 온 자연의 모습을 주어 유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 ④ ‘홀 홀 홀’은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날리는 모습을, ‘썩아’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를, ‘호르르르’는 낙엽이 낙화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성 상징어들은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다.

주의사항

- ① 2번 문항의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자연을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①, ②, ③, ④번 선택지는 모두 그러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하지만 ⑤번 선택지의 경우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 나타난 (가)에 대한 설명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다른 문항의 <보기>일지라도 상당히 중요하며, <보기>는 해당 문항 뿐만 아니라 전체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

5. ④

정답 [E]에서 ‘길’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 아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하다고 하였다. 이는 ‘길’이 내부로 향해 있고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거나 그늘을 드리워 땀을 식히게 해 줌으로써 호의와 배려를 베푸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뿐만 아니라 (나) 전체에서 ‘길’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① 화자는 [A]에서 ‘길’이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B]에서 ‘길’이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길’이 일부러 길을 끊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게 한 것이고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 구체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은 ‘길’이 일부러 길을 끊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게 만’든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C]에서 ‘사람들’은 [B]에 대해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C]의 ‘사람들’은 [B]에서의 경험을, ‘길’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 ③ [C]에서 ‘사람들’은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 슬기를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D]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 스스로를 깊이 들여야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D]에서는 [C]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⑤ [F]의 ‘사람들’은 ‘그것’, 즉 ‘길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반면 [A]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F]의 ‘사람들’과 [A]의 ‘사람들’은 서로 대비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의사항

- ① 2번 문항의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는 길에서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기에 ‘길’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나올 수 없다.

6. ③

정답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고향에서 ‘육보름 밤’에 경험했던 일들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① (다)는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글쓴이가 좋아했던 처녀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담으로 볼 수 있다.
- ④ ‘새악시 처녀들’이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탈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육보름’이 ‘일탈이 용인되는 축제’로, 이러한 풍속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자깅자깅’은 육보름 밤에 ‘새악시 처녀들’이 복물을 길어 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이고, ‘끼득깨득’은 육보름 밤에 ‘새악시 처녀들’이 부잣집에 가서 기왓장을 벗겨 오고 솔뚜껑을 들어 오고 갱날을 뿜아 오는 등의 일탈을 하며 웃는 소리이다. 따라서 ‘자깅자깅’과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는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주의사항

- ① ③번 선택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에 따르면 독자는 슬픔(개인적인 경험)과 즐거움(공동체적 경험)의 대비를 통해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는데, ‘육보름’에 대한 경험은 공동체적 경험이다. 즉 ‘개인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양면성’은 보여 줄 수 없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는

- ① 개인적인 경험이다.
- ②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다.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 ① 공동체적 경험이다.
- ② 일탈이 용인된 유쾌한 축제이다.

두 경험을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보기>에 나타난 (가)와 (나)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나 부정하는 것을 찾는다.

- ① 수선화에게 연상된 이야기가 공동체적 경험이거나 유쾌하면 적절하지 않고, 고향의 풍속 이야기가 개인적 경험이거나 슬픔을 환기해서는 안된다.
- ② 두 경험을 통해 독자가 삶의 양면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각각의 경험만으로 삶의 양면성을 느껴서는 안된다.

→ ③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삶의 양면성은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을 대비해야 느낄 수 있지만, ‘육보름’에 대한 기억은 공동체적 경험뿐이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① 삶의 양면성에 대하여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근거를 드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와 (나)에서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③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확인할 수 없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 ①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이 각각 슬픔과 즐거움을 보여 주지만 선택지에서 특정된 지문의 구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빠른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③
---	---	---	---	---	---	---	---

문항별 정답률

1.	①	81	②	4	③	10	④	4	⑤	1
2.	①	2	②	4	③	2	④	90	⑤	2
3.	①	6	②	75	③	9	④	4	⑤	6
4.	①	2	②	6	③	81	④	7	⑤	4

1. ①

정답 (가)에서는 ‘채전’이 ‘목숨의 유연과 천지와와의 화합’하며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나)에서는 ‘버섯’을 ‘황홀한 음지의 꽃’이라 하며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에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가)에서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이는 존재이므로 이를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자족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에서 ‘버섯’이 ‘상처마다’ 피어나는 모습은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상처’가 있는 현실에 저항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불어 화자는 버섯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채전’을 예찬하고 있기에 화자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관조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전’의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그 생명력과 조화로우음을 중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버섯’을 관조적으로 응시하고 있지 않으며, ‘버섯’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 ④ (가)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은 확인할 수 없다. (나)의 ‘별목’은 ‘참나무 때’를 ‘썩어 가’게 만든 인간의 행위로, (나)에서는 ‘패역의 골짜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채전’은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투영된 장소이다. (나)의 ‘별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는 ‘참나무 때’가 ‘썩어 가’며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공간이므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투영된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버섯이 피어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즉 (나)에서는 중심 제재인 ‘버섯’과 심리적 거리감을 부각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 ① ③번에서 ‘관조적 태도’란 대상을 ‘고요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말한다. 즉 예찬, 비판 등의 태도가 드러난 묘사(관찰)은 관조적이라 할 수 없다.

2. ④

정답 ‘나비’, ‘풍뎅이’ 등의 동물과 ‘바람’, ‘그늘’ 등의 바람을 모두 ‘많은 손님들’이라 표현한 것은 사물을 인격화(의인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주기에 이와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 ① (가)에서 ‘가 보아라’가 반복되며 ‘와서 보아라’로 변주된다. 이러한 반복과 변주는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는 ‘지극히’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범속한 것들’을 보고 ‘충족한’ 느낌을 받은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에서 부정 명령형이 사용되었고, 여기서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을 알라’라는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생명의 양상’이라는 관념(생각)을 ‘빛나는’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채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주의사항

- ① 모든 선택지가 꽤나 세부적인 표현법을 묻고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④번 선택지 또한 표현법이 아닌 ‘시적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3. ②

정답 [B]에서 ‘우리’가 ‘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으며 [C]에서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고, ‘버섯’이 피어났다. 이처럼 ‘버섯’이 피어나는 일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순환적 관계가 나타나려면 현상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한다. 하지만 [A]와 [B]에서 그러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C]는 참나무의 ‘상처’에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고, [D]는 그로 인해 참나무의 고통이 ‘순간에 멈추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C]와 [D]는 반대되는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인과적 관형성하려면 두 현상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D]에서는 ‘너(버섯)’가 참나무의 고통을 멈추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고, [E]에서는 ‘낙엽’이 산비탈에 구르고 ‘바람’이 골짜기를 떠도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D]에서 참나무의 고통이 멈춘 것은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구르고 떠 돌게 된 원인이 아니므로, [D]와 [E]가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낙엽’과 ‘바람’은 ‘우리의 몸’을 ‘덮을 길 없’었으나, ‘너(버섯)’는 ‘우리의 몸’을 ‘독기로 채웠다. 따라서 ‘낙엽’과 ‘바람’은 ‘너(버섯)’와 동질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주의사항

- ① ③번 선택지에서 [C]에는 고통과 상처가 있고, [D]에서는 고통을 멈추게 하기에 서로 대립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C]에서 생명이 생성되어 [D]의 고통이 멈추는 모습은 인과적 관계에 더 가깝다.

4. ③

정답 내용<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는 모두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지향점을 지닌다. 그렇기에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라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자족’하는 태도가 드러나기는 하나, ‘현실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해야 한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현실은 생명 파괴가 나타나며,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가)는 <보기>에 나타난 현실과 관련이 없다.

- ① (가)에서는 ‘한여름’에 ‘채전’에서 채소들이 자라는 풍요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나)에서는 ‘겨울’에 ‘참나무 떼’가 썩어가는 모습을 ‘버섯’이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가)에서 ‘울타리’는 ‘채전’의 경계로서, 그 안은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자라는 함께 자나라는 곳이다. (나)의 ‘골짜기’에서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벌목’이 자행되는 곳이다.
- ④ (가)에서 ‘그들’은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다. (나)에서 ‘음지’는 ‘버섯’이 피어나는 곳으로, 벌목당한 ‘참나무 떼’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다.
- ⑤ (가)에서 ‘비’는 ‘지극히 범속한 것들’에게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생명의 충만함을 갖게 한다. (나)의 ‘소나기’는 ‘버섯’이 ‘음지’에서 피어나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참나무 떼’의 상처를 치유해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주의사항

- ① 정답인 ③번 선택지는 고르기 어렵지는 않았으나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나)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의 설명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③번 선택지는 <보기>에 따라 어느 것 하나 맞게 설명된 것이 없는 완벽하게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다. 문항 오류나 복수 정답을 만들지 않겠다는 출제자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선택지 구성이 전반적으로 단조로우며, <보기>에 나타난 (가)와 (나)의 비교를 선형적으로 나열하며 구성되었다.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분류했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생각의 흐름

[보기 정리]

(가)에서는

- ①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 ②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한다.

(나)에서는

- ①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②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공통점]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

CASE 1 <보기>에 나타난 (가)와 (나)의 설명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나 부정하는 것을 찾는다.

- ① (가)에서 인간의 욕망 혹은 황폐화된 현실을 극복한다.

→ ③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② (나)에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말하거나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한다.

- ③ (가)와 (나)에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공통점]의 반대)

→ ③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생명체들은 어우러져 살아야 하며 ‘홀어지게’되면 안된다.

CASE 1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CASE 2 <보기>에서 벗어난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에서 생명에 대한 <보기>와 상관없는 제3의 근거를 드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 ③번 선택지 정답의 근거(현실에 자족하는 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족하는 것은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이다.)

- ②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시적 상황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

CASE 2에서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CASE 3 <보기>와 지문의 해석을 잘못 엮은 것을 찾는다.

- ① (가)와 (나)에서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타난 ‘생명의 모습’이 선택지에서 특정된 구절과 다른 것을 찾는다.



iBex Study